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나라의 '신물' 혹은 '보물'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1. 신라의 삼보

고조선 이래 각 나라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신물(神物)을 창안해 냈다. 통치자는 기물의 조성을 통해 '신' (성)의 각성(覺性)을 부여받으려 했다. 통치자가 신에게 다가갔을 때 그 신의 기운이 담긴 신물은 신과 동일시되었다. 해서 신물은 그 주인되는 신의 분신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물을 갖는 이는 신의 대리자 혹은 신 자체이기도 했다. 고조선의 신물은 '다물활' 이었고 고구려의 신물은 '다물활'과 '청동방울'과 '청동거울'이었다. 최씨 낙랑국의 신물은 적군의 침입을 놀랍게 알려주던 '자명고'였다. 신물이 사라지자 낙랑은 고구려에 망하고 말았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제사장만이 신의 소리를 내는 영물(靈物)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지엄한 소리를 내는 청동방울이 울리면 신의 강림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방울을 흔드는 자는 신을 마중하는 의전(儀典)의 주재자였다. 점차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제사장과 통치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통치자는 여전히 신성(神聖)의 권위를 빌기 위해 신물을 창안해 내었고 그것을 매개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신라 진평왕 때 등장하는 천사옥대(天賜玉帶)와 황룡사 장유존상(丈六尊像)과 황룡사 구층탑(九層塔)의 삼보(三寶)와 신문왕 때 등장하는 만파식적(萬波息箴)과 거문고[玄琴]의 이보(二寶)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한 신물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조선 이래 신물은 신과 동일한 존재

고조선은 '다물활' 고구려는 '청동거울'

통치자는 신물로 자신의 권위 확보

《삼국유사》 '기이' 편 '천사옥대' 조목에서는 제 26대 진평왕이 즉위 원년에 상황(上皇)의 천사(天使)가 내려와 옥대를 전해주었다고 전한다. 왕은 교묘(郊廟)와 대사(大祀) 때는 으레 이 띠를 띠었다고 한다. 그 뒤 고구려왕이 신라를 치려고 도모하다가 신라에 황룡사의 장유존상과 황룡사 구층탑과 천사옥대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획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2권 경명왕 5년 조는 왕이 천사옥대가 보관되어 있다는 천존고(天尊庫)로 추정되는 남고(南庫)를 열어보게 했다. 하지만 천사옥대가 보이지 않자 따로 날을 잡아 재계하고 제사를 올린 뒤에야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또 '만파식적' 조목에는 "신문왕이 문무왕 해중릉에 나아가 그 산에 들어가자 용이 검은 옥대(黑玉帶)를 만들고 와서 왕에게 바쳤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하사하고 사람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이 문득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

에 간직해 두었다.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질병이 낫고, 가을 때는 비가 오고, 장마 때는 개이며, 바람이 가라앉고 물결이 평온해졌으므로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箴)이라고 부르고 국보를 삼았다고 전한다.

2. 왕권강화의 기제

살펴본 것처럼 천사옥대는 신라의 중고기인 진평왕 때에 조성한 신라 삼보의 하나였다. 그런데 신문왕대에 다시 흑옥대(黑玉帶)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하나의 옥대가 있는데 다시 새로운 옥대를 조성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 중대 무열왕 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왕권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천사옥대 설화를 재편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신문왕 이후 진골왕들도 흑옥대를 착용함으로써 비로소 나라 제1의 사망 신궁(神宮)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궁에 제사지낸 때는 동왕 2년 1월이고 흑옥대를 받은 시기는 같은 해 5월이어서 이 견해는 수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후대자료인 《동국여지승람》의 '경주고적' 조목에는 '옥대'만 나올 뿐 《삼국유사》의 표현 그대로인 '흑옥대'와 '천사옥대'와 '성대' (聖帶)가 아니어서 어느 것인지 확정하기도 어렵다.

'만파식적' 설화는 《삼국사기》 32 '악지'에도 등장한다. 신문왕 때에 동해에 휴연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모습이 거북머리와 같고 그 위에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갈라져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고 이름을 만파식(萬波息)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부식은 '이런 이야기가 있으나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 덧붙이고 있다. 《삼국유사》 '만파식적' 조목에서는 이 사건을 신문왕 10년의 일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은 신문왕대가 아니라 효소왕 대의 일이며, 만파식적은 효소왕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학자도 있다.

《삼국유사》 '원성왕' 조목에는 왕의 아버지는 대각간 효양이 선대로부터 지녀온 만파식적을 왕에게 전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정원(貞元) 2년 병인 10월 11일에 일본왕 문경(文慶)이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러다가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물리고 사신을 보내 금 50냥으로 피리를 보자고 청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에는 상대(上代)의 진평왕 때에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듬해 7월 7일에 (일본왕 문경이) 다시 사신을 보내 금 1천냥으로 청하기를, "과인이 그 신비로운 물건을 보기만 하고 그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전과 같은 대답으로써 이를 기절하고 은 3천냥을 그 사신에게 주고 금은 돌려받지 않았다. 그 피리는 내황전(內黃殿)에 간직하였다고 한다.

이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만파식적은 신문왕대에 이뤄진 것일까 아니면 효소왕대에 이뤄진 것일까. 위의 맥락을 종합해 보면 만파식적은 신문왕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중대

용이 옥대를 받들고 왕에게 바치니



신라 진평왕 때는 천사옥대와 황룡사 장유존상, 황룡사 구층탑의 삼보가 있었다. 옛 황룡사터의 모습

왕권강화 위해 천사옥대 설화 재편성 왕위 계승 정당화 위해 '만파식적' 지어 무열왕 신물로 삼한의 정통성 견해

왕실이 중고기 왕실의 상징을 계승함으로써 무열왕계가 왕위 계승의 적자임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무열왕계는 중고기의 신라 삼보를 이으면서도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현금(玄琴)과 만파식적에 만만파식적을 가작(加飾)함으로써 삼한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신라 하대에 중고기의 천사옥대와 중대의 만파식적의 존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나라의 상징

신물은 《삼국유사》 '기이'의 서문에도 나오는 '부령' (符命)이자 '도록' (圖籙)과 같은 상징적 기물이다. 일연이 "옛날의 성인(聖人)은 그 예악(禮樂)으로 나라를 일으켰다"고 한 것처럼 신물은 예(禮)와 악(樂)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 주요한 기제였다. 해서 신물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통치자와 그 주변에서 주도한 '이미지 메이킹'의 산물이자 통치자와 제사장 사이를 매개하는 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국가에서 신물을 창안한 것처럼 진평왕 때 창안한 신라 삼보 역시 사직의 상징이었으며 이보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신기한 기물이었다.

고대로 피리로 대표되는 소리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것은 '유교' 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소리'는 물리적인 음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지만 왕실은 의례와 음악을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중고기의 신라 삼보 중의 '천사옥대'는 허리띠였고, 중대의 이보 중의 '만파식적'은 소리를 내는 피리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여러 신물 가운데 허리띠나 소리를 내는 피리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는 신 혹은 하늘을 상징하는 신물과 교감하면서 백성을 통치하였다. 때문에 통치자의 권위는 사회 바깥의 신 또는 하늘에 가탁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었다. 진평왕은 신라 삼보를 만들어 내었고 중대의 무열왕계는 이를 계승하면서도 고구려로부터 전해온 현금과 만파식적이라는 또 다른 상징을 만들어냈다.

신물 가운데서 천사옥대는 '하늘이 내려준' [天賜] 허리띠였고, 만파식적은 '용이 받들고 온' [龍奉來獻] 대나무로 만든 피리였다. 이처럼 옥대와 피리는 모두 바깥의 권위에 의탁한 신물이었다. 통치자인 왕은 이러한 상징을 만들어냄으로써 내적으로는 힘[力]의 권위를 확립하고, 외적으로는 세[勢]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결국 왕실에 의해 이루어진 이들 신물은 대외적으로 고구려와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대내적으로는 백성들과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고기와 중대 왕들이 만들

신물은 백성 통치 위한 '이미지 메이킹' 고대 통치자는 신물과 교감하며 통치 신물은 외적의 침략도 막아내

어떤 나라의 상징은 대대로 계승 발전되면서 위용을 발휘하였다.

황룡사에는 신라 삼보 중 두 가지가 간직되어 있었다. 한 절에 두 가지 삼보를 비정하고 간직할 수 있었던 까닭은 황룡사 구층탑 건립을 주장한 안흥(安興)과 이 절의 사주(寺主)이자 또는 구층탑 건립을 건의하고 지휘 감독한 자장(慈藏)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고려 태조 왕건은 천사옥대만을 남겨받았다. 아마도 황룡사 구층탑은 고려 수도로 옮겨올 수가 없는 것이었으며, 옮겨오기 쉽지 않은 황룡사 장유존상 역시 선덕왕이 영묘사에 장육상을 새로 조성해 모셨으로써 신라 유일의 장육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국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 삼보 가운데 천사옥대를 남겨받았을 뿐 신라 중고기 이래 신라 왕들이 계승 발전시켜온 문화적 전통까지 이어받을 수 있었다.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공단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합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합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코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나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허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